

# 風神考 (附禾竿考)

宋錫夏

一、梗概

二、禾竿

三、淵源

四、結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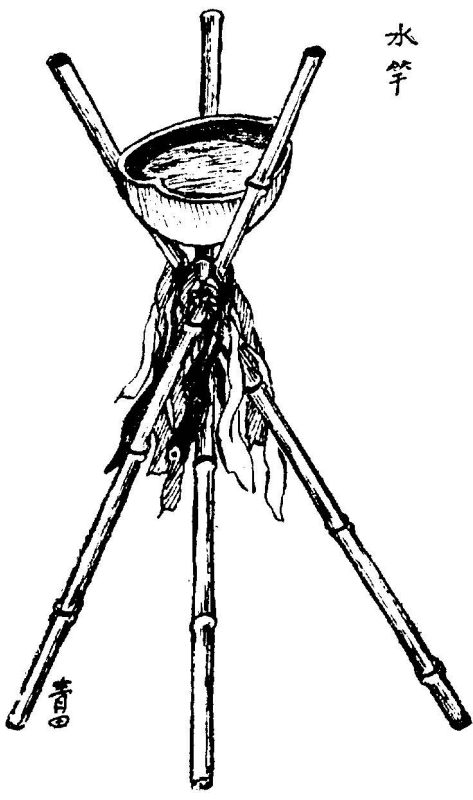
## 一

本稿에 風神이라 함은 主로 南朝鮮地方一帶에 傳承하여오는 舊 二月의 『명동합머니』 또는 그와 類似한 名稱으로 부르는 民俗信仰을 指稱하는 것에 限定하노라。

이를 學的研究對象으로한 學者가 古今으로 通하여 數三人 있었으나, 오히려 素的으로 氷釋할만한 說明을한 前例가 없어, 이케까지 民俗學的 宿題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케 筆者가 拙考를 試하려는것도 群盲撫象之格에 지나지 않음가 드려와하는 것이며, 이點에 對하여는 讀者 諸彦의 寬大한 諒解가 있기 바라는바다。

『영동·風神』의 對한 梗概를 略述하면, 그 名稱은 『영동·할만네·영동·할만·영동·할만니·영동·할만시·할만시·영동·바람·風神·할만네·영동·연등·연등·麻姑·할만니』 등의 여러가지 名稱이 있다. 只今 便宜上 三個地方의 代表的 儀式을 例舉하면 다음과 같다. 南朝鮮의 東部 地方에 서는 正月 晦日에 黃土를 門前에 깔고 左 繩繩을 大門 又是 삼작에 걸고 그 釜줄에는 靑葉이, 붙은 竹枝를 數三枝 꽃아두어 不淨을 避한다. 그리고 鷄鳴後에 우물에 서 淨華水를 汲取 하야 장독간이나 厨間에 두었다가 翌朝에 馨飯(淨飯)을 한後에 그것을 『벗가리』에 갖다두고 主婦가 祈禱(손비 빈다고 함)을 드린 다음, 靑竹 三個를 交叉 하야 上部에 서 一尺許 쯤 되는 곳을 結縛하고, 色絲·五色布片·白紙를 달고 新瓢의 內에 淨華水를 그 우에 둔다. 禱意는 農事의 豊饒及 家內의 安泰를 主로 하며, 初十日 十五日

水竿



二十日의 改水하며, 『영동·할만네』는 初十日에 上칭(層?) 十五日에 中칭 二十日에 下칭이 올라가 고, 餘滓(찌꺼기)는 晦日까지 麥田에 남는다고 한다. 『영동·할만네』가 떨어, 데리고 下降(내려오 면)하면 바람이 불고, 머느리를 데리고 下降하 면 비가 온다고 한다. (註一)

南海岸地方(例로 統營)에 서는 二月初一日 質明 에 忠烈祠우물(忠武公 祀堂前)에 서 中流 以上家

庭의 處女와 少婦가 飲食을 俱備하여 먹고, 淨華水를 汲取 歸家한 뒤에 新瓢에 담아 두고 新竹 一個의 先端를 數片으로 割割하여 그 靑竹을 땅에 굳게 세우고, 그 위에다가 前記 淨華水瓢를 올려 두고, 그 밑에는 五色布片・五色絲・白紙等을 걸고, 물대(水竿 卽 前記 靑竹)에는 冬栢・松・竹葉을 달고 地面에는 黃土를 깐 後에 主婦가 前年 가을에 秋收한 淨穀을 항아리에 넣어서 特히 大廳 又は 房안에 準備하여 두었던 것으로 五穀飯・비빔떡(巨濟島에 서는 인질미)을 차린 後에 燒紙 祈禱를 한다 (巨濟에서는 祈禱 飲食을 家內 會食하고 인질미만은 유지방의 苞內에 넣어 大廳에 있는 成道缸에다가 위치하여 두었다가, 三日後에 먹고 長承浦에서는 風神 을라간 後에 먹는다)

그리고 집안 事情에 依하여 二月初一日에서 初五日까지 祈禱를 變更할 수도 있다. 淨華水는 二月初一日에서 二月十九일까지 每日 改水하며 『영동할마니』는 二月初四日 初九日 十九일에 을라간다고 한다. 여기에서와 말과 머리의 差別은 前者 同様하다. 特히 이 地方 附近에 傳承하여오는 다른 類型의 二月初一日에는 閻氏風神의 나리고, 二月十九日에는 處女風神이 나린다고 하여 全然 相反되는 形態를 發見할 수 있으나, 그다지 普遍的이 아닌 것 같을 뿐더러, 二月十九일이란 것은 筆者에게 資料를 提供한 사람의 錯誤가 아닌가 한다. (註二)

京畿道 安城 及 忠南 天安・大田에 서는 二月初一日에 『麻姑할마니가』 下降한다 하여 그 집안 食日의 年齡數과 同數의 송편떡을 해서 먹고 謹慎하며, 同月 二十日에는 上天이라고 할 뿐이요 特殊한 儀式은 없으나, 이날 비가 오면 大豊의 前兆요 少不過 소리개 한 마리만 지나가도 좋다고 한다. (註三)

濟州島의 그것에 對하여는 業已 他學者가 紹介한 바 있으므로 割愛하기로 한다. (註四)

前記한 「벗가리」는 秋葉隆 教授가 紹介한 것도 있지마는、(註五)此亦 南部 朝鮮에 盛行되는 風神信仰에도 關聯되는 立竿民俗으로 上元 拂曉에 세워서 二月 朔日 早曉에 撤去하는 것이며 『유지방·유지방·유조지·오지방·유지방·유구지·해대·보름대』 등의 別名이 地方에 따라 存在한다. 長竿 上頂部에는 藁苞를 만들어 붙이고 거기에다가 幣紙·竹笹·과랑개미를 꿰고 藁苞 밑에는 藁根을 間間이 나오게한 左綯繩을 나리기도 하고, 又是 대나무를 細長하게 짜게어서 白紙를 감기도 하여 (한쪽만 가워질을 하여 白紙의 一部分이 일어서게 한다) 亦是 垂下하게 하는데 이는 禾穀을 象徵함은 贅言할 必要도 없는 것이다. 「벗가리」가 祈豊民俗이라 함은 筆者가 前에도 말한 바도 있거니와、(註六)이 民俗이 어디서 胚胎되었나 하면, 禾狀 象徵의 物體로 因하여 豊年이 되어달라는 것과 鳥害豫防의 二重의 呪術 信仰에서 出發하였다고 보겠다. 그리고 後者의 鳥害豫防에도 두가지의 相異한 形態로 分類할 수 있다고 하겠다. 即其一은 南海岸 地方에서 發見할 수 있는 爲鳥報賽의 俗信에 依한 것이고, 其二은 東海岸 南端 地方에 있는 爲鳥禁忌의 俗信이라고 하겠다. 前者에 있어 「벗가리」를 鳥止棒·鳥止防·留鳥止 등의 漢字를 借用함은 措信하기 難한 일들뿐 아니라, 前舉의 各名稱이 다만 音便上의 變化인 이만치 그 根據는 오히려 薄弱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俗信의 鳥類가 「벗가리」우에서 놀다 가게 한다는 것은 相當히 普遍的이다. 그리고 新羅 炤智王의 琴匣事件으로 因하여 發生되었다고 傳하는 爲鳥報賽民俗과의 關係에 對하여는 그 可否 如何를 斷

할만한 資料가 없으므로 이는 後日에 屬할 問題라고 하겠다. 後者의 爲鳥禁風의 俗信은 『벗가리』는 『갈』이라 는 새 (想像鳥로써 鳩鳥와 같이 그 새가 지나가기만 하여도 凶年이 든다고 한다)가 오는 것을 불리치기 爲하여 立竿하는 것으로 갈새가 이 立竿이 存在하는 洞里에는 襲來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벗가리』가 아니라 『僻갈』이라고 하나, 이와 같은 文字上의 戲弄은 前者 同樣 何等 權威 없는 說로써 單純한 附會에 지나지 못함은 勿論이다. 그러나 形態上으로 前者보다는 進歩된 것이라고 할것은 前者의 鳥類가 上元에서 二月 朔까지 接待을 받아서 單純히 秋期에 啄穀의 害를 끼치지 아니한다더라도 豊凶을 左右할 權威가 없는 것이다. 그 새에다가 超實際力을 賦與하여 그새의 飛去하는 地域에는 如何한 理由를 不拘하고 凶年을 招來한다면 비로소 有力한 信仰이 發生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內容을 觀念上으로 分類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벗가리』는 鳥類에 關聯된 呪術的 祈豐 民俗임을 틀림없는 것으로 다음에 말할 風神 民俗하고 接觸되는 部分도 이 祈豐觀念에 있는 것이다.

이 民俗의 分布 地域은 現在에는 湮滅되어서 詳細한 調査는 자못 不可能한 事에 屬할것이나, 大略은 京城以南으로 갈수록 그 民俗이 盛行한것만은 明瞭한것이다. 李紆의 『陰崖日記』에 「國俗於元月望日 縛藁作穀穗連籬象多實 架木通索 以祈年穀 闕內國俗稍煩 共制模像七月篇所載人物 以爲耕種之狀 初非欲作奇巧 亦是務本重農之意 至末流 左右分邊 有勝負 勝者有賞 官吏公匠 競作新巧 假物作形 極其珍妙 搜括物色 市肆一空……」과 『東野粹言』 卷一、我國紀年鈔、中宗에 「癸酉命行內農作 國俗於元月望 縛藁作穀穗 連籬禾實 架大木通索 以祈年穀於闕 其制象七月篇 以爲耕種之狀 意在重農 初非作奇 而末流分邊 務出入右 窮極戲玩 浮費且千 臺諫論其不可 上以祖宗故事

不宜頓廢 強言辯數 必欲觀玩 舉國爭不得 大小且怪……」라고 함을 볼진대、이는 闕內에서도 甚히하여 終末에는 演劇的 傾向을 띤 것을 알 수 있다. 純祖朝人 洪錫謨의 『東國歲時記』에 鄉里人家 以上元前日 東薰如蠶狀 包禾黍稷 粟之穗 又懸木棉花 胃於長竿之首 建屋傍 張索把定 稱禾積以祈豐」이라 한 것과、正宗朝人 柳得恭의 『京都雜志』의 「東薰如蠶狀 胃竿首 建屋傍 張索把定 稱禾積 國朝故事 正月望日 大內象繭風七月耕穫狀 分左右角勝 蓋亦祈年之意 而閭巷禾即其一事爾」라 함을 보면 現在の 禾竿民俗과 相當히 接近됨을 斟酌하였다.

以上の 文獻으로 年代를 大略 考察하여 보면、李紆는 成宗 때에 出生하여 燕山君 때에 文科에 登第하여 그 後 刑曹判書로 逝去한 사람으로 『陰崖日記』의 記事는 燕山朝의 것을 記錄한 것으로 寫實的으로 이삭이 달린 벼를 그대로 結構하여 나무에 걸어 祈豐하던 呪術的 行事이던 것이 그 後 約二百五十年을 經過한 正宗 때에 이르러서는 禾黍稷粟等の 五穀 及 棉花實을 竝에다가 차서 蠶과 같이 만들고 그것을 長竿에 달아매어 建物의 附近에 세우는 象徴的으로 變遷함을 알겠다. 그리고 『東國歲時記』와 『陰崖日記』에 記錄된 物體가 同一한 것을 指稱하였다고 볼 것은 柳得恭의 『京都雜志』의 前半은 『陰崖日記』와 같고、後半은 『東國歲時記』의 같음을 보아、柳得恭은 李紆의 『陰崖日記』에 敷衍하고、洪錫謨는 柳得恭의 『京都雜志』를 補飾함을 알겠다.

그리고 「벗가리」民俗의 分布 地域은 以上の 諸 文獻에는 明白한 記載가 없으므로 窺知하기는 難하나、『京都雜志』가 大略으로 京城 中心의 記錄이므로 稀微하나마 京城에서도 있었음을 推測될 터라、民間 傳承上으로 보면 京城에서도 存在하였다고 하며、忠南 唐津郡 高大面 眞館里에서는 現在에도 이 民俗이 傳承한다 하니、그分

(註七)

(註八)

布地域은 自京城以南一帶에 存在한것은 明確한事實이라고 하겠다.

觀念上的 立竿民俗은 只今 結論부터 말하면, 以上の諸文獻이나 民間傳承에 依하여 祈豊에 있다고 하겠으나, 다만 漁撈에까지 關聯되는가 아닌가는 當分間 言明을 避하고치 한다. 그리고 『벗가리』가 祈豊의 形態에 있어서 呪術的에서 演劇的으로 後期的 發達한대 關하여도 後日의 考察에 밑우는 것이다.

三

『영동』信仰의 發生 起源에 對하여 文獻과 民間傳承에 各種의 說이 있으므로 이케 이것을 檢討하여보겠노라. 柳河源의 上流에 依하면 「嶺南靈童之說 自五十年前始於沿海一邑 今則以至尙善諸州 俗趨風靡 家奉戶祀 人神雜糅 妖邪妄誕 宜今道臣 曉諭禁斷云云 答曰嶺南事宜禁之 而曉民宜戒 道伯不可不知」란것이 『영동』信仰의 起源에 言及한 最初의 文獻이 아닐가 한다. 이에 따르면 英祖 十二年頃 即 西紀 一七三六年頃에 비로소 沿海에서 發生 하야 慶北의 善山尙州一帶에 分布되었다고 하였는데, 이에 對하여 李能和氏는 그著 朝鮮巫俗考에 靈童神은 百濟 武王인 薑重을 위한神이라고 하였다.

柳河源의 靈童神에 對한說明은 比較的 明瞭하나, 如何한緣由와 形態에서 發生하였는지에까지 言及하지않으므로, 現在의 『영동』風神』信仰의 起源證明에 是 依然히 不充分함을 免하지 못하며, 李能和氏의 薑童說 亦是 薑重을 末通이라고 하고 末通이 訛轉하여 永通이라 하였으니, 그音이 近似하다 하야, 薑童神이라 斷案함은 더

구나 承服하기 難하다.

世間에 善政官員說話의 關聯시켜서 「영농」은 永同通引의 所化라고 하안, 영농할마니가 아나고 영농풍인 이란 傳說이 있고, 或은 慶山郡의 「영동」(아이의 이름)說話에서 난것이라 하나, 兩個亦 措信키에 條件이 不足하다. 此外에 申光洙의 「石北集」 蔡濟恭의 「樊巖集」 洪錫謨의 「東國歲時記」 尹廷鏡의 「東寰錄」等에도 「영동風神」의 對의한 記述이 있으나, 다 같이 그 起源에 對하여는 何等言及함이 없다.

東國輿地勝覽 卷之三十八 濟州牧 風俗條에 「於二月朔日 歸德金寧等地 立竿十二 迎神祭之……至望日乃罷謂之 然燈 是月禁乘船」이 라고하였는데, 現在에는 이와 같은 殘存하지 아니하나, 神은 「영동할만」이라고 부르며, 舊二月十四日의 무당이 搖鈴은 흔들며 呪文을 부르고 家家를 訪問하는 行事를 하며, 그때에 쓰는 대(竿)를 「영동대」(迎燈竿)라고 한다고 한다. (註九)

萬一筆者에게 憶測을 許容하다면, 濟州島의 然燈도 「영동風神」信仰의 一形態로 柳河源의 說과 같이 李朝 末期에 始生된것이 아니라, 原始信仰의 一種類로 보겠노라. 「영동風神」信仰의 原始形態에 屬하다고 볼것은 「영동바람」(二月風을 영동바람이라고 한다)은 專히 在天하는 「영동할마니」에게 所隸된것으로 그것은 그해의 凶豊을 豫示하는것으로 영농할마니의 民衆에 對한 宣告라고 南朝鮮 一帶의 民衆은 所信하고 있다. 그리고 그 神을 擬人化하여 大端 번덕이 많은 女神이라고 생각하여, 自己의 隨從으로 女兒를 데리고 下降할 때에는 그 딸의 衣服이 바람에 翩翩하 나 부끼는것을 자랑하기爲하안, 그해는 바람이 많고, 머느리를 데리고 下降할 때



에는 그의華麗한衣服을嫉妬하여多雨하게한다는多分의人間的說話가存在하며、그形式에 있어서도우리의原始信仰에 그類例가 가장 많이發見할수 있는立竿形式임은 또한注目할現象이라고 하겠다。即『蘇塗』가 그러하고、「별신대」가 그러하고、「벧가리」亦是 그러함을 볼 때에 영동함마니는新式神도 아니고新式信仰形式도 아님을 알수 있다。그러나『영동風神』에對한正確한淵源的考證은依然이不明에屬하므로、以上の說들于先假說로提供하는것이다。

四

南朝鮮 一帶에 亘하여 信仰하여오는 『영동風神』을 現存의 形態로써 考察하여보면、그神은 擬人的인 老女神으로 말라며느리 差別을 하고 喜怒의 變度가 急한 女子의 偏性을 具體化한것으로、그神格神性を 自明하게 하였다。樊巖集의 「翁婆再拜神前伏」은 現在에는 何處에서도 發見할수 없으며、主婦(女子의 最尊丈의 意味)만 祈禱를 하고、男子는 干涉하지 아니한다。그리고 『영동風神』은 바람과 같이 在天한 神인것은 반듯이 立竿에 依한 祈禱 形式이 絶對 條件인것과 그用語上으로 보더라도 即「내려온다」「올라간다」로써 알수 있는것이다。

또 가장 注目할것은 이神은 바람과 같이 그神體를 分割할수 있는 組織體임을 發見할수 있는 同時에、그神自體가 一種 妖氣가 湧치어진 한개의 有毒妖體라고 보겠다。即二月初十日에는 그 동안의 致誠에 依하여 毒氣가 消滅된 部分만 登天하고、十五日에는 又 三分之一의 無毒神體가 上天하고、二十日には 남아지가 消滅 上天한

後에 殘澤(찌꺼래기)는 보리밭(麥田)에 남았다가 消滅하는 것이라고 한다。(이와 같이 解釋하고 보면, 데리고 온 女兒與 子婦는 何日에 上天하며, 又 統營의 例에서 볼 수 있는 十九日에 下降한 女息은 何日에 上天하는가 하는 問題에 逢着하는데, 이에 對한 解釋은 아직 하지 못하므로 遺憾으로 생각하는바다.)

『영동風神』의 正體에 對한 考察은 如上하거나와, 信仰 形態上으로는 生産에 關聯된 農漁荒神이며, 二可分性有毒 妖氣集成體라고 하겠다. 또 特殊한 것은 一 洞里라든지 一 郡이라는 大集團의 所崇 對象인 共同致誠神이 아니고 個人의(一戶) 所崇神인 가장 利己的 神임을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附言】 現代人 以外에는 尊稱을 全部 省略하였으니, 讀者의 諒承있음을 바라고다. — 甲戌秋夕後 三日 於京城記 —

註(一) 蔚山郡 下廂面 伴鷗里 金正福氏談。

(二) 統營 崔天、李璋振兩氏談。

(三) 安城郡 元谷面 竹相里 李洪植氏 外數人談。

(四) 秋葉隆「濟州島に於ける蛇鬼の信仰」(遼陽文化園の試み)(靑丘學叢 第七號)。秋葉隆「巨濟島の立竿民俗」(朝鮮民俗 第一號)。

(五) 同上。

(六) 拙稿「新登、古登과 民俗」(朝鮮中央日報 本年 四月 二十三日)。

(七) 朝鮮民俗 第一號 一四頁 第六行。

風 神 考 (宋錫夏)

一六六

(八) 唐津郡 高大面 眞館里 孫寬秀君談。

(九) 秋葉隆「巨濟島の立竿民俗」(朝鮮民俗第一號)。

(一〇) 孫晉泰「蘇塗考」(民俗學 四の 四)。同人「蘇塗考續補」(民俗學 五の 四)。